

대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 선생님입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고 있죠?
제가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팟캐스트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한국 문화 얘기 한국에 있었던 일들
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가끔은 또 제 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팟캐스트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끔은 캐주얼하게 친구처럼 제 얘기도 하고 싶더라
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고
생각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랑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 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같이 그냥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캐주얼하게
오늘은 제가 요즘에 생각해보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우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언어 언어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요즘 많이 했던 생각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나요?
저는 사실 친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가 이번 년도에 생각해보니까 친구를
한 명도 안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이제 10월인데
10월까지 제가 만난 친구가 없어요

저는 주말에도 항상 혼자 있었고
진짜 가끔 제 학생들만 정말 그것도 가끔
한 명 두 명 만난 정도?
거 말고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논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친구 없이 살아가도 괜찮을까?
친구는 왜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
저희가 특히 어릴 때는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항상 만날 수 있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 친구를 볼 수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친구들도 자주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친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가까이에 살거나
아니면 같은 취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조금 더 그래요.
저희는 다 바쁘거든요.
일도 많이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특히 연애를 하면은
보통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만
노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친구를 유지하는 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대분

특히 저는 해외에도 많이 나갔고
이사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아 친구 만들어야지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도 나가고 했었는데
이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깊게
친해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나서
카페 가고 밥 먹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는 되기 어렵다.
딱 그런 느낌.
결국 작년에만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고
이렇게 친구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항상 집에서 혼자서 일하니까
진짜로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고
전 주말에도 뭐 아침에는 일하고
낮에는 그냥 진짜 너무 피곤해요.
제가 나이를 이제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피곤해요.
주말 낮에는 계속 자고
저녁에는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면 끝.
저는 그렇게 올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일하고 자고
이제 밥 먹으면 끝.
그래서 친구를 정말 한 명도 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10월이 돼서

약간 2025년이 끝났는데
이번년도 어땠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진짜 집에만 있었네?
나 진짜 아무도 안 만났네?
나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나가서 친구를 좀 만들어야 될까?
친구가 필요할까?
친구가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람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과 교류하는 거,
사람이랑 만나는 거는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E예요.
E타입이라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마 제 일이 학생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걸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학생도 만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느낌?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방에서 쓰러졌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어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어 그러면 나를 도와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멀리 계시고
나 쓰러지면은 누가 알까?

대분

어떤 사람이 알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좀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인생에서 친구는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친구고 만드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은
 아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친구 자주 만나나요?
 친구는 몇 명이 있는 게 좋을까요?
 친구는 있어야 할까요?
 에 대한 대답이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저의 다른 생각은요.
 바로 언어 한 개나 두 개를 정말 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언어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적당히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 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 같아요
 올해 제가 원래 언어 2개를 더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일본어도 하고 싶었고
 포르투갈어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둘 다 공부를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일단 제가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 거는 좀 힘들었다.
 좀 힘들었고 일본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욕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본어를 공부할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애니만 가끔 보는 정도?

애니만 가끔 보고
 뭐 일본인 친구도 없고
 일본인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나랑 정말 잘 맞다? 하는 선생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의욕이 없다 보니까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공부하다가
 나 이거 왜 공부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왜 다른 언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 할까?
 나의 목적은 뭘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언어들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이미 공부했던 이런
 영어랑 스페인어를 더 깊게
 약간 C2 레벨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언어 공부는 재밌어요. 언어 공부는 재밌는데
 동기나 의욕이 없으면
 계속 꾸준히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는 진짜 원래 영어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스페인어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조금 솔직하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언어 선생님이니까
 언어를 다섯 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언어를 5개 정도는 알아야 학생들한테
 아 나 이렇게 다 공부해 봤어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안 좋았고
 이런 방법을 다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대본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언어를 하면 쿨해 보인다고
이런 느낌도 있었던 거 같아요
약간 오 멋있는 사람
언어 5개는 좀 멋있잖아요 그죠?
다섯 개 하면은
약간 쿨한 사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쿨해 보이고 싶다.
그리고 언어 선생님이니까
언어를 다섯 개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제가 진짜 왔다 갔다 해요.
성격 이거 약간 고치고 싶어요.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할까?
했다가 저거 할까? 했다가
그게 진짜 저의 단점입니다.
정말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요즘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면 언어 5개를 약간 B1, B2 레벨로 하기
아니면 언어 2개를 깊게 C2 레벨로 하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일단 요즘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언어 두 개를 다시 깊게 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이러다가 내년에
아 여러분 저 다시 일본어 공부해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요즘에 해왔던
이런 엉뚱하고 랜덤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말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나누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을 많이 하나요?
고민이 많은 편인가요?
오늘도 저의 이런 랜덤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 추워지는데
아프지 말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